

과기정통부, 카자흐스탄과 과학기술 인재양성 프레임워크 체결

- KAIST를 벤치마킹한 카자흐스탄 과학기술원 설립 협력
- 선진 교육·연구 시스템 확산 및 중앙아 과학기술 협력 거점 구축

【관련 국정과제】 26.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금번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와 9월 15일(화) “과학기술 인재양성 프레임워크(이하 '프레임워크')”를 체결하여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KAIST를 비롯하여 과학기술 인재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편, 세계 1위의 천연 우라늄 생산국이자 원유·가스·광물 등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은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공계 핵심 인재 양성 기관으로 KAIST 모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카자흐스탄 고등과학교육부는 KAIST를 벤치마킹한 카자흐스탄 과학기술원의 성공적인 설립·운동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향후 설립 기반 구축, 교원 역량 강화 및 학생 교류,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에서 상호 협력하며, 과학기술 인재양성 우수사례 및 정책 공유도 추진할 계획이다.

동 프레임워크는 현지 핵심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진 과학기술 교육·연구 시스템을 중앙아시아에 확산하고 장차 양국 간 혁신 생태계를 이어줄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일방적인 개도국 지원 방식에서 나아간 호혜적 협력 모델로서 의미가 크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한-카자흐스탄 정상 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과학기술 파트너십이 한 차원 더 높은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 며, “앞으로도 카자흐스탄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성과가 미래 성장과 번영을 이끄는 글로벌 과학기술 우수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병현 (044-202-4340)
		담당자	사무관	박민영 (044-202-4343)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